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성산읍 고성리 장광자, 홍삼순 해녀 - 1

해녀: 장광자(1943년생,)

홍삼순(1942년생,)

인터뷰 일자 : 2019. 08.

인터뷰 : 좌혜경(Q로 기록),

해녀 : 장광자(A로 기록), 홍삼순(B로 기록)

A : 저는 이름은 장광자고, 고성리에 아이고, 먼저 굴을 말을 뒤에 굴아점수게. 고성리에 사는 장광자입니다. 언니

B : 나 고성에 사는 홍삼순입니다.

Q : 그 요즘도 작업 요즘은 쉬고 있잖아예

A : 예. 요즘은 다른 어촌계도 다 쉬고 있을 거우다마는 처음부터 우리 그 성산포 수협에 저 열세(13) 어촌계입주게. 경허난 쉬는 거는 똑같이 쉬어근에 저 십오일(15일)이 한물끼(1물끼)민 구일(9일) 작업허고 육일(6일) 쉽니다게. 경허 죽 쉬어오는다 이 여름만큼은 자기 어촌계만씩 쉬는디 우리 어촌계 두덜(2달)허민 네물끼(4물끼) 쉬었우다. 우리 어촌계는 네물끼(4물끼) 쉬난, 또 경허고양 물건도 엇고게, 전이만이. 우리가 나가 영 생각허민 옛날에 물웃 입어근에 물 가는대로 침 따라근에 일로 이 바당으로 들영 저레 가고, 저 바당으로 들영 이레 와근에 험 삼십분(30분) 살아근에 불턱에서 불 때영 불추곡, 또 달달달달 털명 다시 저쪽으로 강 들곡 험 때는 또 머구리 베가 잇영 그때 당시엔 나가 시집 왕 보난, 그추록 해근에 물건 엇영 머구리베 다올리레 걸라, 머구리베. 물질만 잘 허지 말앙 머구리베 다올리레 걸라 걸라 해근에 침 어른덜 허고 ㄱ찌 다녀신게. 그 머구리 베를 다 없애부난에 그 다음부턴양 물건이 막 잇어근에 잡아집디다게. 경허 건디 아 그 전복도 안잡은 날 엇이 잡고 헤여간게 이제 고무옷 남시작허난게 하루 서너, 세 시간, 네 시간 날을 잡당보난 지금엔 물건은 없고, 우리 어촌계 다른 물건보다 소라가 조금 하우다게. 바당이 널릅주. 고성신양 어촌계라고 해근에 마을은 두 마을이고, 같은 어촌계난에 바당에 조금 저 섭지코지를 빙 허게 우리바당이난에 허는디, 그 지금도 돌아오난에 요즘 시대에 텔레비 자꾸 보민 이추록 허난 올리 이 가을은 들어근에 소라 못 잡으민 우리 굶게 된 거 닥게시리 생각 뒤편수다마는 험 때는양, 바다 널러부난 소라도 많이 잡고, 또 개간초엔 험 것도 일본 보내난 돈 되고, 또 성기¹⁾도 행 곽 성기로 행에 성기 곽에 행, 영 놔근에 허민 험 곽에 얼마 험 그땐 그추록 험 돈 험꼴 벌어수게마는 요즘은 그런거 저런거 물건도 아니 나고, 또 우리 잡는 물건은 우리 생각엔 돈 아니민 쥐어근에 조금만 쥘 받아 감젠 허고, 먹는 어른은 또 바다의 물건은 비싸텐 허곡 지금도 경허는 거 닥수다게.

B : 요즘은 이 장광자 말썽 아니라도 놀고 그자 했우다. 오늘은 침 바당 놀래 가. 열두시에 갈 건디

Q : 바당 놀래

B : 금지 기간이라부난. 가서 존 고동이라도 잡아오카부텐, 궂디 덩기는 사름덜. 바르²⁾ 가민 이 존 고동 금지기간이라부난. 고동 금지기간이라부난. 바당 놀고 잇우다. 요새

1) 성기 : 성계

2) 바르 :

Q : 요즘 막 저기 소라들이 어느 만큼 잇우과? 소라

A : 전이 보민양. 나가 저 경험으로 느끼민, 이제 이 산란기엔 헨 금했다근에 시월(10월) 일일(1일)날 터나수계게. 터났는디, 우리 줍수덜이, 해녀덜이 먹을 거 엇덴 웨어부난에 구월(9월) 일일(1일)로 앞뎡기난에 구월(9월) 일일(1일) 내영 소라 잡으민 크질 안허곡, 훈덜(1달) 동안 잇어도 시월(10월) 일일(1일)이 넘으민 소라가 막 우리 바당엔 커 뷔영, 저 섭지코지 바당에 건 금해놔 텡, 그 다음 요 흐꼐 저 물건 무신거 헨 바당으로, 덜 나는 바당으로 구월(9월) 일일(1일) 넘으민 허치해영 팔월(8월) 추석에도 먹음도 허곡, 첨 해여 오는게, 저 요즘 금지기간은 그 웨방³⁾서 와근에양, 소라 그 돌 일러근에 존 고동덜 요만씩 헨 거 다 잡아가부난 우리도 못허는 디 왕 잡지 맙센 허민 잇당 감정 삼아근에 잡으레 온 어른덜은 '이거 니네 바당이냐. 나라 바당이주' 허멍 싸우멍 험니다마는 경해도 해녀로서는 우리가 지킴이로 지키렌

Q : 그것도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해야 될거파?

A : 예. 반으로 꾸며근에양, 해녀덜은

B : 반으로, 하루에 여덟사름(8사름) 해여근에 한 바당에 둘(2)이씩, 바당이 널러부난양

Q : 하루에 여덟분(8분)이 두(2), 넷(4)으로 나눠가지고

B : 예

Q : 바당을 이제 돌아다넘구나양.

A : 예

Q : 하루종일?

B : 아니, 물때 싸민. 오늘 같은 날 다섯물(5물)이난 열두 시(12시)에서

A : 저, 이 훈물(1물) 두물(2물)이나, 열서물(13물), 열너물(14물), 열다섯물(15물), 그 한조기, 악근조기는

B : 안 허고

A : 빼고, 오늘이 다섯물(5물) 아니파. 경허난 오늘 다섯물(5물)부터 허여근에

B : 어제부터

A : 어제부터 해수과? 경허난 너물(4물)날부터 시작허민 열두물(12물)날까진 지킴수계. 열두물(12물)날까지

Q : 너물(4물)에서 열두물(12물)까지.

A : 너물(4물)날까지, 예

Q : 그땐 바당 싸부니까

A : 예

B : 물 싸부난

Q : 물 싸부난에. 그 구쟁기는 어떤 데가 많이 잇입니까?

A : 구쟁기양. 거 참 희안합니다. 우리가 영 고동 잡으멍 보민양, 이디도 여고, 이디도 잇인디, 그 고동이

B : 올르는 디만

A : 올르는 여가 잇어마썸. 경허민 기억력, 첨 아까 교수님말짜 아니라도 기억력 좋은 사름은 양, 달려라 달려 그 고동 올르는 여를 먼저 가근에 숨비여근에 잡는 그런 것도 잇입니다게.

Q : 고동 올른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올르는 거파?

3) 웨방 : 外方. 외지

A : 올른다라는 것이 저 이 여름에 해근에 우리가 구월(9월) 되엿 가면 흐꼐 저 올라옵니께. 저 여 웃터레. 가을 되가민 올라왔다근에 봄 되어가민 오물오물 헨데레 내려가. 경허민 저 우리 그 어머님 세대덜은 우리신디 ㄱ르침을 경험니께. 저 그 옛날은 우리게 조 같지 안해수과? 게민 조코고리 나가민 고동이 흐꼐 밑으로 내려간덴, 어럽넨 헨 뜻으로 어머 니덜이 '아이고, 조코고리 나곡, 고개 소곡 소곡 해가민 고동도 알려레 내려강 못잡아' 경 곱아나수다.

Q : 조코고리가

A : 예. 게메 구시월(9,10월)에 비지 안헙니까게.

B : 게난예. 고성도양, 바당에 거라도 희안해마삼. 철에 따라양 돌틈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다시 때에 따라 동산에 다 올라올 때도 있고, 들어갈 시가 되문 다 들어가불고, 경험디 다.

Q : 고동이 많이 나는 여가 있고

A, B : 예

B : 저, 우리

Q : 그리고 어떤 여가 많이 나쵸, 여기서는?

B : 거 희안헙니다.

Q : 여 이름 알아지쿠과?

A : 예게. 우리, 우리가 머릿개 허민, 새여, 새여 원 새여, 원 첫번 허치허민 새여엔 해근에 그 고동잡으레 경 해녀덜이 다 그디쪽으로 가고양,

B : 저 셋거시

A : 셋거신 가민 나베기여 우선 거느리고⁴⁾ 똥짖여 우선 거느리고. 뭐 바당마다 이름은 다 틀 립주. 뭐 가린여, 납닥여, 뭐 그추룩 행 헙니다마는 우선 초담 허치헙 때 동곶 허치허민 머릿개 가젠 허곡. 허허허허, 또

Q : 다 ㄱ치 가근에 헙 거 아니?

A : 예

B : ㄱ치 강 해도예. 저 상군덜은 짚은 디 강 해도 체암⁵⁾ 헙 때는 짚은디 안 갑니다. 앞은 디 거 잡아먹젠 허주 짚은 디 갑니까. 경허민 와자자자 와자자자

A : 허허허허. 거 상군덜 잘 잡는, 우리도 헨 때 첨 상군이러나수다마는 상군덜 잘 잡는 이유 가게, 처음 허치 땐 그 중군, 하군 잡는디서 ㄱ치 숨비영, ㄱ치 잡아 똥 나가명 잡곡, 나 가명 잡곡 허당보민 숨질곡, 깊은 디, 수심 깊은 디 들어가는 어른, 저 사름덜이게 아무 물건이라도 하영 잡읍주게

Q : 거른 그 구쟁기는 알 싸서 키우는 거과?

B : 예

A : 바당에선 알 짹니다. 이 저 아직도양 해섬⁶⁾ 종패 만들고, 전복 종패 만드느렌 해도, 고동 은 그추룩 안 헨덴해도 우리가

B : 오월(5월)만 되민 산란기

A : 오월(5월)덜 저 되어 가가민 그 망사리에 잡아다 노면 흰물이 바각바각

B : 다 알 나. 다 산란기. 그거

4) 거느리고 : => 거느리다 : 어떤 일에 대해서 끄집어내어 말하다. 이름 따위를 들먹이다.

5) 체암 : 처음

6) 해섬 : 해삼

A : 거니까 요즘 들어기네
Q : 소라도 암수가 이신가?
A : 암수가 있는 거 같아마씀. 우리가 분간은 못해도. 영 보민 늙은 것도 영 보면 저 오랜 소라는 색깔도 시커멓하게
B : 아니, 깨영 보면은예. 그 깍이양 흰깍이 있고 푸린깍이 잇입니다. 예 경허난 어느 것사 암놈 산디 숫놈산디
Q : 아, 그걸로 구분을 햄신가?
B : 예. 경험실 거우다.
A : 계난 그건 잘
Q : 흰깍 푸린깍 그걸로?
A : 예. 그
B : 우리도 잘 모르는다 깡 보면은 저 흰깍이 있고 푸린깍이 잇어마씀
A : 옛날 우리 어머니도 물질을 해연 허난, 우리 어머니 항상 곶음은 전복은, 암전복은 납작허고, 숫전복은 움작허난 숫전복, 암전복 가리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저 거시기 몇해나 큰 거파?’ 허민 어머니 허는 말은 ‘이거이 바당에서 큼 시작 행은 혼 코가 일년(1년)씩 커간덴 헌다’ 허명, 영 허민 고망이 있는게양 경 행 어머니가 그추룩 얘기해줘나신디, 지금은 그추룩 큰 전복 보기도 힘들고양, 어찌다가 일년(1년)에 혼두번(1,2번)은 또 해녀덜이 막 영덕지기에 한 숫전복 이민씩 헌거 나올 때도 잇입니다. 우리 그 어촌계에는
B : 하나에 팔백그램(800g), 일키로(1kg)짜리도 있고예
Q : 숫전복이예
A : 예. 숫전복이 나. 숫전복은 진짜 먹을만 험니다게. 껍질은 알루릉허고 움탁허고. 암전복은 양 일키로(1kg)짜리나 구백그램(900g)짜리 허민 꺼풀이 두껍고 여물은 또 족고 경험니다.
Q : 그 전복인 경우도 알을 나 가지고
A : 경, 경허는 겁주.
Q : 허는 거알예
A : 예. 계난 그 아직도 연구해여근에 소라종패 만들진 못허켄 허명 우리가 침 곶으민 그 연구실에서 항상 곶읍니다마는, 그 바다에서 보민양 우리가 망아리에 잡아다 노민 흰물이양 바각바각 허여근에양 진짜 울큰 혈 정도로 허는디 올린 그추룩 허당 보니까양 꺽디가 소라 종패가 많아마씀. 올리가 올리가. 우리 멧 해 중에 올리가 조금, 내년에 어떻 될지 모르쿠다마는
B : 풀아먹지 못 허키어
A : 허
Q : 거른 그게 몇 년 잡아야 그게 완전히 큰 게 될 거
A : 아멩해도 한 삼년(3년), 오년(5년). 삼년(3년)쯤 자라가민 요만씩 해도 그자 들까말까, 우리 교수님도 들엄수다마는 우리 그 성산포 수협관내에서 소라가 제일 큰디가 성산포에엔 행 지금 돈 흐꿀 더 받고, 그딤 사백원(400원)을 일키로(1kg)에 더 받읍니다. 그디 고동 못지 안허주게 우리 고동도. 경해도 우리 고동은 온평리로 저레 소라가 줄므로 따까리 허켄 허명 일본 보내젠 허민 따까리 혈 거난 어떻험니까 어떻험니까 허명 7)뜨게7) 해영 풀아신디양. 소라가 그추룩 저 아멩해도양 오년(5년) 잇당 큰 고등덜은 원 혼 오년(5년) 넘은 거 잡아점신고라 침 시커멓 허곡

7) 7뜨게 : 같게

Q : 늙은 거
A : 예 늙은 고동
Q : 거른 고동은 그냥 손으로 좇어만 놀 거?
A : 예
Q : 그 고망 여와 여 사이에 뭐 그런 건 엇입니까?
B : 훈엇이
A : 그런 것도 잇우게. 잇인다. 그 침, 꺾군허고, 꺾디 숨비는 어른덜허고, 중간에 숨비는 사
름덜은 그런 거 흙 푸젠 행양 호맹이도 가정 덩겨근에 영 흙 파 오곡 허는디 수심 깊은
디 숨비는 사름, 상군덜은 아예 그거 바리젠 안 허영 막 돌아댕기멍 나 거만 영 좇영 좇
어오곡
Q : 빠르니까예
A : 예
Q : 그 오분자기가 요즘 여기도 좀 많이 남덴 허멍예
A : 어떻헨 원 안 난게 남시작 허난 또 안 받아 가켄 햄수게
B : 전복이 혈해부난⁸⁾
A : 전복 그 양식전복이 혈해부난산디
Q : 그 오분자기는 종패 허신거?
A : 종패, 우리 어촌계는 안해수다마는 성산 어촌계 두어번 했우다.
B : 우리도 훈번 표선이 강 해봐수다마는 성공 안헙니다.
Q : 성공 안돼니까 다 죽어불언마썸?
A : 예
Q : 건데 요즘 오분자기가 남덴허멍
B : 아니 저흰양 원 편척 엇어나수다. 경헌디 작년부터 흐꿀나도 경 많이 안 нама썸게. 많이
안 나
Q : 그 오분자기허고 전복은 어떤 차이가 나는 거파? 구분 헐 때
A : 구분 헐 때 그
Q : 전복새끼하고
A : 꺼풀이 틀려마썸
B : 꺼풀이 틀리는디 맛은 비슷해여마썸
A : 꺼풀은양 완전 틀려
Q : 꺼풀은 어떻 달라마썸
B : 작아, 작아
A : 저 눈이 오분자기 뚜껍은, 꺼풀은 눈이 좀진좀진허게 보이고, 전복 꺾덕은 흐꿀 듨실듨실,
꺾떡이 영 노면은 아예 차이가 납니다.
Q : 오분자기하고 전복하고. 그 요즘은 전복이 좀 납니까?
A : 전복 잘 안 нама썸. 것도 자연산, 경해도양 우리 몰라, 다른 어촌계도 마찬가지로주마는 소
라 잡을 때, 소라 잡을 때덜 허면 몇 개씩 나 앓는 것 닥고, 이 곳으로 성귀 요 저 고동
소라 금혜든에 우리가 성계 허단에 금햄수계계. 전에양 그 **성세혈** 때 문어도 흐꿀 싣고⁹⁾
헌게마는 이 통바리사 노난산디 원 문어도 잘 없고, 성귀만 허단에 그 성귀도 또 이 혈

8) 혈해부난 : 값이 싸니까

9) 싣고 : 앓고

시기가 넘어가면 그처럼 망아리에 잡아다 노민 그 와싹허게 고름 피어근에양, 알피어근에 바각바각 해불민, 불턱에 왕 까보민 다 나가비영 엇어마씀

Q : 성게는 그것도 그냥 어떻 되실 철일파?

B : 성게는 그냥 고망에 잇입니다게. 고망에 나자 호랑(??) 같은디나. 우인 엇어마씀. 육지는 우이도 나는데 여기는 우이 나는 법이

Q : 가네는 뭘 먹으면서 자랍니까?

B : 몰르쿠다

A : 것도 무시거, 풀 바다에 그 전복 같은 거 먹는 거 닳아마씀. 모든 게양, 그 나가 보니까 소라 저 소라도

Q : 해조류

A : 예. 해조류 먹고, 도 전복도 있다근에 바다나 썬젠허고, 어떻허민 그 전복이양, 잇당 들막 허게 들러질 때 보민 그런 감태잇는 디 강 감태 물영 탁허게 영 있으면 빗창 아니해도 탁허게 터질 정도로 있고, 그처럼 험니까. 그처럼헌디 성게도 영 보면 아멩해도 저 바다에 등복 같은 것이 흐폴잇는 디가 성게도 있고, 솔지고. 그런 거 먹엄신고라. 경헌디 성게는 딱 바당에, 선 아니까게. 영 딱 요만이 허민 조금 넘어가민 바다엔 성게 엇고 굿디만 잇우게 성게. 성게 오분작은 굿디만 잇는 거. 경허고 전복허고 소라, 해삼 같은 건 굿디도 있고, 짚은디도 있고, 덩기당 보면. 경헌디 첨 그게 희안허게 성게허고 오분작은 딱 굿디, 어느 선까지만

B : 계남양 성게도 바당에 가민 다 솔지지 안허여마씀. 희안합니다. 고동에 잇는 거, 없는 거 모양으로. 솔지는 디는 솔지고, 주는 딴 항상 줄어마씀.

Q : 어떤 디가 솔집니까?

B : 몰르쿠다 그건게

A : 아니, 나가 보면 아멩해도 바당도 깨끗허고 먹을 디가 많은데가 하고, 먹을 디가 잇는 디가 주는 거 같으면서도 비슷한 바당인디도

B : 건네집시몬 먹을 거 엇어

Q : 경허니까 소라 같은 경우도 그 해조류를 먹는 거

A : 예. 해조류

Q : 감태라든지 이런데

B : 예. 먹는 거산디 그 탈의장에서 장사해근에 수족관에 해 노민 이 감태를 해다놓니다게. 그 수족관에 넣는 것도

Q : 그다음 해삼은 어떻 잡읍니까. 그냥 막 잇입니까?

A : 해삼 잇는 딴양 아멩해도 저

B : 모살통

A : 모살 잇고, 저 굿인 것이 영 모다. 굿인 게 뭐 무신 것이 아니고, 등복 같은 거, 바다에서 미어진 것도 잇고양, 그런 디가 주로 잇고, 또 흐폴 수심 깊은 디 잇곡, 경험니까 해삼은. 해삼은양 막 먼 바당에도 가민 이 잡양덜양, 상군덜 막 잡양 나고 험니까. 굿디 날, 처음 시작은

B : 굿디 나

A : 굿디로 시작은 해가다근에 나중 되민 그 수심 깊은디도 강 잇어. 바로 이만씩헌 해삼도 그 수심 깊은디 건. 굿디 건 좁스릉허는디

Q : 거른 가네는 그냥 저기 딱 붙어 잇인거라마씀?

B : 예

A : 붙어 있어도 해섬은양, 우리 알아지게 막 기어잡, 기어텅깁니다. 막 늘어지게, 우리 알아지게

Q : 늘어지게예

A : 예

Q : 처음에 해삼을 사람들이 징그러웠을 건데 그걸 어떻게 먹을려고 해신고예

A : 게메 말이게. 나도 그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게. 경헌디 또

Q : 먹음은

A : 제주도만 또 그건 무사 제주도만 무사 홍삼은 나심디 몰르쿠라마씀

Q : 무산고

A : 예. 요즘은양, 그 육지 해섬덜 왕 장사허멍 글로 내려가고 무신거 허당보난 우리 바당에도 있당양

Q : 아, 흑삼도 있어?

A : 흑삼도 가당 오당 잇입니다. 그런 것덜 막

Q : 바다속에 들어가면, 아 요즘은 뭐 해조류는 뭐 엇우과, 해조류는?

B : 예. 고성 신양리는양 바당은 막 널러도양 천초가 베랑 엇입니다게. 저 오조리 시흥리더렌 하는디 우린 천초가 베랑 엇어마씀

Q : 거문 뭐

B : 계난 이, 침 이디 오직이 우리 장광자 말하듯이 오직이 고성 신양리는 주로 그자 소라

Q : 소라. 아, 전혀 그 우뭇가사리

A : 아니, 처음은

B : 처음은 조금 잇입디다마는

A : 나가 결혼한 완 보난, 난 친정이 온평리우다게. 온평리서 신양리 시집완에 고성 완 사는디, 영 오민 고성 신양에, 경해도양 온평리 닳지 안허영 우뭇가사리도 흐꿀 나고, 저렌 안 나도 이 앞바당에 우리 그 일출봉 있는 저 유채꽃 있는 그 앞이가 우리 바당이우다. 그 요샌 유채꽃 안허는디, 경허민 거기 우미도 나고, 막음도 낭 흐꿀 조물양 풀고 해나신디, 그게양 워낙 깨끗헌 바당에만 남신고라 바당에 우리 생각엔 깨끗해 봐도 오염사 됴신디 그게 짝 엇어져수다게. 엇어지고 다른디도 영 보민양 우리 그 수협 관래(관내)에서 보민 시흥리 성산 오조리가 이 봄 한철나민 몸 해근에 막 돈 사고, 우린 또 하진 안 해도 조금 해여근에 돈 사나신디양 그게 몸이엔 헛게 짝 원 시흥리고 어디고 엇어점신게마씀. 경허고 또 교수님 들엄실거우다마는 우리 그 저 제주시 수협 떨어불민 우리 수협에서 톨이 일등(1등)이라나지 안해수가게. 톨이 고성 신양 어촌계가, 우리 어촌계가 톨은 최고라 나신디, 요샌 또 그처럼 옛날만이 밋허게 톨은 안 나도 톨도 먹을 사름 엇이난에 다 내범수다.

Q : 아, 톨. 그 거 옛날에는 마을에서 작업을 해영 일본으로 수출하는데예

B : 예.

A : 예

B : 경허민 한 목을 봐신디, 요샌양 늘 늘채나 몇키로 안허민 풀아 먹을 수가 엇어마씀

Q : 음, 요즘은

A, B : 예

A : 계난

Q : 계도 나긴 남구나에

A, B : 예

A : 톨, 지금은, 우리 올라도 놀 톨로 한에 그 하도 어른이라고 흥 누게니, 그 어른 한에 박 달양 몰르완에 우리 돈 조금 사수다마는 얼마 안받아가켄한에 허단 내벼수게 바당에. 계 난 나가 저 온평리서 첨 이디 시집을 땀 그땀양, 메역을 대중헙디다게. 메역 대중허난 우리 어촌계는 우리 바당이 삼리(3리) 공동을 해난생이라. 옛날 우리 어머니덜은양 삼리(3리) 공동허민 오조리 해녀, 고성 신양 해녀해군에 물질허단에 이제 밀려와, 오조리 사름덜을 이제 신양리서가 밀려 밀려 밀려오난 이제 무신거니, 메역 돈은 하영 가난 우리 고성에서 허고, 이제 저 톨은 돈 안 가난 옛날엔, 돈 안 가난 오조리 훈 해, 신양리 훈 해 그처럼 한 삼리 공동 한 허던 톨인디. 어느 순간은양, 아맹해도 그거 멧 해 안 되실거라. 우리 지금 큰아덜이 쉰넷(54)이우다. 가이 곧 서른에 장계 가신게마는, 가이 그 장가가는 시기가 어머니덜이 돈 흐꿀 벌어들이다. 우리 세대엔. 그 땀 왜 돈 벌어서넨 허민 교수님, 소라도 일본 수출허민 일키로(1kg)에 칠천원(7,000원), 칠천이백원(7,200원). 또 그 개간 초도 우리 바당에가 막 이처럼 행 조물양 오민, 그 일본 사름덜은 횃사라에 톨덴 허멍 그 독고달, 그 우린 이름이 개간초주 독고달 독고달 허멍 그걸 허민 그것도 그건 일키로 (1kg)에 오천원(5,000원) 한에 돈벌고 한에

Q : 날채로?

A : 놀로. 그 받아가는 어른은 왕 받앙

Q : 말련에?

A : 아니, 조금 싹 뿌려근에양 해영가근에 어디 강 건주 행 보내고 했우다. 경한 우리가 그 당시에 훈 삼년(3년) 동안양, 흐꿀 돈도 벌언 첨 집도 고천 덩기고, 막 그땀양

Q : 훈 일년에 얼마정도 벌어져수과?

A : 아, 그 땀 알아지쿠과게. 소라도 허민 돈 주곡, 저 그 개간초도 허민 돈이곡

B : 그때는

Q : 못 쉬영

A : 예

B : 그때는 쉰시간 엇인디, 아홉물날까지 쉰시간 엇영 죽장 덩겨수게

A : 경허곡양 또 저

B : 요즘 나난에 구일(9일)만 작업했주

A : 계난 그땀양 바당에 덩기는 어머니덜이양 사름이 아니라나수다. 밧디 가져, 바당에 가져, 이거 허레 가져, 애기 데령 검질 매저 허민, 아이고 이 누게네 집 어멍은 이봄이 살지 안 허켄 허멍 막 그처럼 허멍 해연에 그처럼 했우게마는, 그루후제부터는양. 일본 수출해도 나이 든 어른덜 다 돌아가시고, 젊은 사름은 요새 그 식품덜 나온 거 먹고 행 안 먹엄저 안 먹엄저 허곡, 돈도 안 주고 허난 해녀덜 돈 버는 게 흐꿀 줄어들언

Q : 요 언니는 미역 허던거 한번 애기 좀 해봅서. 미역, 옛날에 미역철 나면 했던 거 애기 좀 해봅서

B : 예. 옛날엔양 메역허민 아이고

A : 굴읍서. 그거 언니 재미지게 굴읍서

B : 거시기 구르마덜, 요새는 경운기도 있저, 차도 있저 허멍, 고성엔 막 저 등대 잇인디 가젠 허민예 저 구르마를 그디까지 못 가서마썸. 거난 홀어멍덜은 죽어 나질 안했우다. 경허민 저 뒷날 앓이고 메역 붙이젠 허민 궤기 장시도 오민 궤기도 상 끌령 먹고, 메역허고 톨은

큰 수입이라나수다게.

Q : 그 미역은 어떻 해마썸. 혼자 잇인 사람은

B : 혼자 잇인 사람은 그처럼 힘들영, 게난 우리 그처럼 훌어멍 된 사람은 누게 저곳디 물질 안 허는 사름 왕 메역 맞음 해도렌 행 메역 맞음 허곡 허난, 그 시절엔 메역허고 툴이 막 커나수다게. 경헌디 이제는 그것도 저것도 설려서

A : 나가양, 아이고 또 메역 말 곱으난, 다 나가 곱아긴에 재미지게 곱으쿠다. 아니, 스물둘 (22)에 나는 정월달에 시집 왕 메역을 조무는디양. 메역을 조물민 우린 저 모살에 신디 신양리 가근에 딱 고성 신양 좀술 혼 밧디 모다놔양. “이디 다 앓읍서” 허여. “이제, 시간 되심에 갑서” 허민양 돌래기. 이 어른은 일등(1등). 달리기를 잘 허여. 쥘 먼저 가근에 어느 바당이라도 일등으로 돌으면 “저 고성 삼순이 일등 했저” 해근에 막 곤곡 웃고. 아, 그땐양 무사 경 애기 벤 어른덜음 함광, 하하하하. 메역 조물레 가당 보민 그처럼 허고, 난양 바당 몰르고 신양리 시집은 오난에 신양리 시어머니도 물질 안 허고 허난 바당이 전혀 몰라. 동생이 잇인 건 육지 살아볼곡 허난, 아이고 첫 한양 바당 널르난에 사름 죽은 딜로 든게, 모살 잇인 저 조진여엔 현 디는, 조진여 가시민 메역을 안 혈걸, 안 속으로 털어져부난 난 혼침 헤메단에 놉 혼 망사리 혼 후제 나 메역 조물멍 허고, 그 다음부터 현 건디, 온평리선양, 돌파당이라부난 그처럼 안 허곡, 친정에 신 땐양. 그 땐 나이도 안 먹었주만은 알동넌 알동네 바당, 옷동넌 옷동네 바당 해근에 돌파당에 물덕에 강 앓양 눈 딱으극 해영 “듭서” 허민 툵툵 털어정 허난 그런 생각 흐꿀도 안해신디, 이 어른덴 다리 안 아팜주. 난 그 시집 온 후제 다리 병신 쥘. 들을락 허민 듣지고 못 허고양

B : 고성 일리(1리)구라부난양 다 느 가져, 먼저 가져 소못덜

A : 아이고, 메역 혼 때 조물민양 기가 차고, 그때사게 교수님

Q : 언니는 어떻 허여근에 그처럼 미역을 잘 허연에

B : 아니, 우리 어머니가 물질을 흐꿀 해나수다게. 게난 우리 어린 때는 강 토망 좀수로 강 저 물웃 안 입을 땐 속곳 나민 어머니는 물질 잘 허난 모닥불 피민 메역귀도 구웁 행 먹구, 굿디서 빵 장시도 행 풀아긴에 메역 쥘 빵 상 먹구

Q : 경 허여근에 그 메역 해당

B : 부락에서 받아나수게.

Q : 부락에서 날 걸로?

B : 아니, 몰랑마썸

Q : 몰르왕

B : 예

Q : 거른 그 거를 해오면 바로 넘니까?

B : 예. 뒷 날은 널어마썸

Q : 뒷 날 널 거?

B : 예. 그 날은 안 넘니께.

Q : 아, 전 날은 그 거를

B : 작업

Q : 뒷날은 누가 널어마썸?

B : 이녁낙으로 널어

Q : 이녁낙으로 본인이 널고, 그 다음에 거를 하루 말리든 될 거?

B : 하루 말려도양, 그 흐꿀 썬움이라고 썬와근에 딱 허게시리 허민 첨 이들은 말려사압니다.

Q : 이틀 말려
 B : 예. 그 뒷날 계속 이틀 말리질 안 하고, 하루 널어놨당 혼 이삼일 있당 뜸 자민 다시 췌움이라고 허영 췌와긴에 말려놨당 그 땐 부락에서 그 상인
 Q : 부락에서, 그건 어땡 묶어긴에
 B : 혼 칭에 얼마
 Q : 혼 칭이 몇 개?
 B : 백근(100근) 잡아
 Q : 백근 잡아 혼 칭하면 그거 몇 단쯤, 몇 개쯤 될 건고?
 B : 몰르쿠다. 게난 부락에 그 상인이 들어오면 부락에서 풀어나수게
 Q : 혼 칭허믈 몇 짐이나 됩니까?
 A : 혼 칭허민양, 석 짐은 저삼주게
 Q : 석짐
 A : 예. 가뿐허게 석 짐. 벌치겐 두 짐. 물론 거
 Q : 어마어마 헨 거주게
 A : 예
 B : 백근이난에게
 A : 이만은 험니다.
 B : 그 메역은양 굴아노민 막, 저 메역 췌움이 방 장사 간덴 그 옛날 말이 잇어나수다게. 영 췌왕 뵈디 췌우민양 메역이 다 탄주국 무신거 허민 와상허여마췌. 백근이라도 어마어마허게 영 커마췌
 A : 게난 저, 나가 두린 때 영 보면, 이 우리 수협도 처음에 잇인 것이 아니란에, 나 역안¹⁰⁾ 보난에, 수협이 생겨난에 험시작 허난 헨 거, 우리 어머니네 때엔양, 메역을 그 땐 흐꿀 저 곤란허곡덜 못 살민 새봄나민 메역 주켤 행 쓸도 바깥 먹곡, 경헌 거 닳아마췌. 그추록 허민
 B : 경 안 했저게. 순 낭 경 헨
 A : 그추록 허민 이제 흐꿀 곤란헌 사름은 전도 물당보민 엇고, 흐꿀 쓸도 있고 부잣집 어른 델은 그 거허민 고싸 곤듯 췌우민 물리국, 물때 따라 오닐 저 아무 바당 뿃 시꺼지 저 물 싸난 물 싸민 물질허켜 허민, 그 새에 이제 메역 다 널어뒤근에 강, 물에 들영 메역 조물아근에 지어 왕, 이제 창고나 어디 검질 낄양 메역 다 헤쌍, 것도 뜻뜻허게 노민 췌어뵈니까. 하루 밤 사이라도. 경허연 헤쌍 널엇당 뒷날 아척 즈을 잡니까?. 밤이 일어나 근에 이제 조근조근 메역 널어두곡 헤영 또 메역 조물양 오곡 헤영 그걸 조근조근 노민 수협에서 받아수게. 수협에서 받으면 수협에선 구전 그 거 허여근에 허난 우리 성산포 수협 요즘은 이제 수협에 우리 해녀덜 잡아들이는 거, 게민 우리가 잡으면 소라도 저 백키로 잡으면 구전 받저, 성기도 백키로 허민 구전 받저 허단에, 이제 어느날부턴 수협이 흐꿀 돈도 벌고 바다에 이제 남자 어른도 수입 생겨가난에 저 “어촌계마다 뜨로 물건들을 풀아근에 돈 벌라” 허난에 우리 어촌계도 이제 허난, 수협에 가는 물건은 이제 다 자기 어촌계마다 해섬이고 오분작, 이제 메역 그런 건 이녁만췌 풀아먹곡, 수협에 가는 건 소라뿐 감수다. 소라뿐 가난에 옛날에는 해녀 어머니덜이 수협을 살련 조합원덜이, 감태 조물아도 수협으로 뜨곡, 또 메역해도 수협으로 허곡, 톨을 해도 수협으로 풀곡, 전부덜 야메로 가민 질레 수협 직원덜이 영 목 막양 있다근에 심어근에양, 막 물건 압수허영 또 수

10) 역안 : 커서

협으로 강 짝곡, 막 울국불국 허는 걸 으라차레 보아와신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열세 어
촌겐디 단지 소라만 수협을 가는디도 또 그 우리 잡는 소라를 전부 다 수협에 무음대로
또 일본더레도 못 보내영, 어느날 잡읍서 허민 잡곡 허단보난, 배가 백척이민 백등헌 배
만이도 우리 못 보는 거 다텍니다. 수협이 못 벌영 올려, 구전을, 수협에는. 경해도 지금
안직??지도 우리가 수협에 가민 어머니덜 해 놓은 텃새로 큰소리 허멍 험니다마는, 경허
난 우리 제주도 허민 교수님 알다시피 여섯개 추자도??지 붙이민 여섯개 수협 아니파마
는 우리 수협에가 안직도 여자 조합원이 하우다. 우리 수협이

Q : 여기는 해녀분들 고성 신양 어촌계는 몇 분정도 됩수과?

A : 지금은 물질허는 해녀가 팔십(80)명이고, 정확하게 팔십(80)명이난, 우리 뭐 등재허여근
에 그 무신거 받아오는 것도 팔십(80)명, 옷도 팔십(80)명인 생이랍디다마는, 딱 매날 가
는 사름은 오십(50)명이고, 그 디 스무 사름은 갔다왔다 험 정도우다. 계난 우리 고성에
만은 삼십(30) 몇 명인디, 삼십이(32)명인디, 죽장 덩기는 사름은 한 이십오(25)명이고 또
나머진 그자 생각나민 가곡 오곡 그자 경해

Q : 그 물속에 들어가면예, 내가 이 바다가 어는 바당이라는 걸 어떻 압니까?

A : 다 압니께게. 알아. 미룻 다 알지 안 허파게. 나도 그자 워방서 오고, 이 언니넨 또 허주
마는 요 조진여, 어디 가민 무신 여, 무신 여, 무신 개, 무신 개 허민게

Q : 그 것을 어떻게 알아, 그거를?

A : 바당 이름이 지와젧우게. 지와져. 지와젧우게. 동 쪽 허민 조진여, 납당여, 상디에 푸는
동산, 성그랭이알, 머릿개, 그추룩 해근에양 여가 이름이 옛날 어른덜이 어떻사 지와신디
몰르쿠다게. 그걸 지완 잇어. 경허민

Q : 불턱이, 멧개 불턱이 하나 잇어났우게?

A : 예

Q : 그 불턱 하나 있으면은, 불턱이 멧 개가 잇어수과? 고성 신양에

A : 고성 신양에 불턱 수정 엇어났우다. 수정 엇어난 건디, 지금 그 해안도로 허멍 다 해불
고, 돌도 해불고 헛주. 머릿개 그 교수님 간 보다시피게. 영에서 추와나고, 영이 두 밧디.
이디 이레 왕은 뭐 밧 안에 그 머릿개 안넨 그 밧 안네 담 싸진 안네도 또 좀수덜 왕 불
도 쭈와나곡, 뭐 저 상디 메역 푸는 동산이나 조진여엔 그루후제 돌담으로 단에 세멘 헉
쫌썩 불라된 쭈나곡, 또 세멘 아니 불라근에 또 돌로만 이렇게 이녁대로 험 헤곡

Q : 계난 물 소중기를 입잖아예

A : 예

Q : 입어가지고 물에 들면 몇 시간

B : 멧 시간인중 알카? 멧 시간, 헉 이삼십(2,30)분 사난에

Q : 이삼십(2,30)분 살양 나와가지고 불 추왕, 그 배 위, 배는 안 헛우과?

A : 우리는 배 안 헛우다

B : 우리는 배 안 허여

A : 이 고성 신양은 배

Q : 불 추와근에 허민, 만약에 메역인 경우는 몇 망사리? 삼십분 허민

B : 메역인 경우는예 두 번 들어나수게.

Q : 아, 두 번

B : 예. 불 추왕 모닥불에서 불 추워근에 두 번 들어나수게

Q : 두번 들영 나왕 다시 이고 추와근에 또 들어가

B : 예

Q : 삼월 물찌는 춥잖아

B : 예

Q : 미역혈 때는예

B : 예

A : 경허난 메역혈 때 그 어머니덜이 욕심 부려근에, 마즘 잇인 사름 확 쥐뿔 들민 마즘 잇인 사름도 그 뿐 따라 추운디 들으민 그 때 ‘아이고, 실렸저. 무신거 했저’ 그런 소리도 듣고

B : 사고도 나고

A : 예. 그추룩 했우게게

Q : 거문 불턱에서 불 쪼고 허영 멧 차례, 오전에 멧번?

B : 아니, 하루에 하루에 그렇게 가민 그자 한번 가민 두번 들엉 옵니다. 게난 그 옛날은양 집이서 그 검질덜을 구덕에 담양 가나수게. 그걸로 허영 불 추영

Q : 한 두번 나문. 경 헤영 미역은 멧 망사리 혈거꽈?

B : 훈 사름이 훈 망사리 뉘야 두어 구덕, 서너 구덕씩 헤서마씀. 옛날엔 꼬아근에 신사라렌 헌 것도 잇곡, 미로 헤여근에 망사리 짜근에양, 요새는 그물이 있주마는 그 때는

Q : 미역 망사리가 컷잖아예

B : 예. 거 남자덜이 잇인 사름은 밧 받아근에 허곡, 훌어멍덜은 산, 저 산, 신사라 해근에 꼬 왕 허민, 그 망사리 하나에 담으민 막 메역을 으라 구덕 나옵니다게

Q : 망사리채 바로 들렁 오는게 아니고

B : 그 굿디서 편에

Q : 다시 구덕에 담양, 정

A : 예. 지영 올앗우게. 다 마즘덜 오는 남자 잇인 어른덜은 바작 행 가근에 막 그레 퍼 낭 지어 올리곡

B : 막 해녀덜 나와가민 남자 어른덜이 짝 차근에 소뭇 얼른 나라, 일로 나라, 이녁 사름 좇 쥘 소뭇

Q : 이제도 우미 혈 때는 경 허니까예

B : 예. 이제도양, 소라 혈 때도양, 마찬가지로. 소라 잇일 때는 남자덜 가근에 다 마즘허레 가민 남자덜 잇인 사름은 침 걱정이 엇어마씀. 우린 일키롤(1kg) 잡으나 오키롤(5kg) 잡 으나 이녁냥으로 행 보글락보글락 허곡, 이 어른허고 난 그자 훈 평생 그자 이녁낙으로 헤근에

Q : 왜예, 언니네 칠십(70) 멧 세까지

A : 우리 영감이야 마즘허레 가질 안 허여마씀. 아이고 훈 평생 하하하, 훈 평생 날로, 날로.

Q : 너무 저기 뭐 허셔부난 그 거 아니?

A : 하하하하. 뭐 허지도 안 허곡, 공무원도 안 허곡, 술만 먹당 살다 가벼수다.